

목포시, 영화·드라마 글로벌 촬영지로 각광

애플TV+드라마 '파친코'·1박2일·한 번쯤 멈출 수 밖에 등 국내외 각종 미디어 목포 주목...식당들 관광객들 문전성시

목포시가 영화, 드라마 등 국내외 각종 미디어의 촬영지로 각광받으며 도시 브랜드 마케팅에 힘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대체인 '애플TV+'가 방영 하며 전세계적인 호평과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파친코'(PACHINCO)의 일부 분량이 목포에서 촬영됨에 따라 주목받고 있다.

'파친코'는 고국을 떠나 역척스럽게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한인 이민가족 4대의 꿈과 희망을 기록한 드라마인데 뉴욕타임즈 올해의 책(2017)으로 선정된 재미교포인 이민진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미디어 속 목포'는 흔하게 봤는데 관광객들 도시 목포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홍보영상 '별주부전', '풍년'에 이어 '숨바꼭질' 등이 높은 조회수를 올리고 있고, 드라마 '호텔 델루나'가 흥행하면서 이에 대한 시너지로 중국 최대 온라인여행사인 '씨트립'이 '목포 근대역사관'을 널리 알리고 있다.

국내 예능·교양 프로그램의 촬영지로도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방영된 인기 예능프로그램 '1박2일' 목포편이 시청률 14%를 기록한데 이어 '한 번쯤 멈출 수 밖에',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등도 목포에서 촬영하면서 맛, 명소를 비롯한 목포의 감성을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알렸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횟수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로 국내 관광이 침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출연한 식당들은 개별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도 목포에서 촬영된 10여편의 글로벌 OTT 영화, 드라마가 개봉·방영할 예정이어서 '미디어 속 목포'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촬영 섭외와 지원, 공모사업 선정과 네트워킹 활용, SNS 홍보, 시민 서포터

즈 운영 등을 통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 펼치면서 미디어가 목포를 찾는 횟수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목포의 매력을 국내외로 널리 알리며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관광 시대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광군, 내일부터 총 6회 '농산물 가공 기본교육' 실시

영광군은 지역 농산물의 소비 진작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농산물 가공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보급하고자 농산물 가공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농식품 가공생산에서 창업에 이르기까지 농식품 사업화에 필요한 절차, 식품인허가, 식품표시기준 등 가공창업 예비자가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계획이다.

농산물 가공 기본 교육은 4월 6일부터 4월 22일까지 기간 총 6회 실시하며, 교육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광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및 가공 예비창업자로 모집인원은 20명이다. 4월 4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농업개발과 떡산 업무상담(350-48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군, 영업용 자동차·건설기계 불법 밤샘주차 연중 단속

무안군은 아파트, 주택가 등 주거 밀집지역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주차 된 화물, 여객, 건설기계 등 영업용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와 대형차량을 주택가 주변, 도로 등에 세워두면 도로주행 시 운전자가 간 소통을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그동안 군민들로부터 대형차량 밤샘주차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단속 대상인 영업용 차량은 번호판의 색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노란색 번호판인 영업용 화물·여객차량은 군 조례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개인택시와 소형 개인화물차를 제외하고 차고지에서 밤샘주차 할 수 있으며, 차고지가 아닌 지역에서 밤샘주차(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로 적발된 차량은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주황색 번호판인 영업용 건설기계는 시간에 관계없이 무단으로 주차된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무안=이기성 기자

함평군, 월동기 꿀벌 피해농가 지원 '온 힘'

예비비 긴급 투입...양봉농가 회생 위한 지원사업 추진

함평군이 월동기 꿀벌 집단 폐사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발 빠른 지원에 나섰다.

4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지속된 이상기온, 병충해 등으로 인한 월동기 꿀벌 폐사로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 양봉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다.

군은 지난 2월 관내 꿀벌 30군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 조사 대상 16,952군 중 40%에 달하는 6,810군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군은 9억5천만원(도비 14%·군비 36%·자부담 50%)의 예산을 투입, 입식비 지원 등 피해 양봉농가의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피해 꿀벌 농가가 회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이번 지원 사업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신안군 하의면 후광2구 경로당 개소

어르신 화합·소통의 장 마련

신안군 하의면 후광2구 경로당(노인회장 전병식)이 지난 28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신안군수, 신안군 의회 의원, 대한노인회 신안군지회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개소를 축하했다.

기존 경로당의 건물 노후화에 따른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의 우려로 신안군은 부지 929㎡(281평), 건축면적 94.78㎡(28평)의 지상 1층 규모로 거실 및 주방, 방 2개, 화장실 2개 등 총 사업비 262백만원을 투입 건립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경로당이 편히 쓸 수 있는



여가 공간의 역할 뿐만 아니라 주민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하루빨리 경로당 운영이 재개되어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택주 기자



영암군, 기찬랜드 어린이놀이터 완공

신체놀이공간·부모쉼터공간 등 어린이 안전 놀이공간 조성

4월 1일 월출산 기찬랜드 내 약 1,619㎡ 규모의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개방하게 됐다.

놀이터가 설치된 기찬랜드는 여름철 물놀이 명소로서 주변에는 자연형계곡폭포장, 실내물놀이장, 가야금산조기념관, 조훈현바둑기념관,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기찬재 게스트하우스 등이 함께 있어 사계절 힐링 여행지다.

놀이터 주요 콘셉트를 소개하면 △조합놀이대 △활차·언덕놀이대·그네·시소 등 다양한 신체 놀이시설로 구성되어 아이들의

모험심과 성취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즐거운 놀이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함께 나온 부모님들도 편안하게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주변에 소형 쉼터와 야외 테이블을 설치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어린이놀이터가 안전하고 유익한 놀이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놀이터는 주로 어린이가 이용하는 관계로 보호자와 아이들이 스스로 방역지침과 안전 지침을 철저히 지켜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